



한국화의 멋과 여유를 느끼다

광주은행 창립 54주년 특별전

‘광주화루전’

12월 30일까지 ‘KJ상생아트홀’
3~6회 수상자 28명 78점 전시

송종욱 광주은행장

“지역문화사업 활성화에 힘 쏟겠다”

‘한국화의 현재와 미래를 만나다.’

9일 개막한 ‘광주화루’전은 한국화의 매력을 만날 수 있는 흥미로운 전시였다. 다채로운 재료 실험과 개성있는 스토리텔링이 담긴 작품들은 한국화라는 장르적 한계를 뛰어 넘어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었다. 서양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가 수가 적고, 고답적이라는 인상이 강한 한국화 장르가 관람객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장이기도 했다.

다양한 풍경을 거울의 이면에 새기고 그것이 벗겨진 흔적 사이로 투과된 수십만개의 작은 ‘빛’을 통해 신비로운 자연의 이미지를 만들어낸 김준기 작가의 작품 앞에서는 한참을 머물게 된다. 세밀한 묘사와 차분한 분위기의 수묵화로 일상을 표현한 고현지 작가의 작품도 눈길을 끌며 현대인의 고달픈 일상을 윤택하게 그려낸 정덕현 작가의 ‘눈치인간’ 시리즈는 빙그레 미소짓게 한다.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이 주최하는 ‘광주화루’는 한국화의 새로운 미래를 탐색하는 공모전으로 지난 2016년 시작했다. 오랜 문인화의 전통을 간직한 광주-전남이 광주비엔날레,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더불어 대한민국 미래 문화콘텐츠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의미도 담은 행사다. 명칭은 추사 김정희의 제자들이 모여 솜씨를 겨루던 모임 ‘회부’(繪圃)에서 따왔다.

광주화루는 매회 행사 후 수상작가 전시회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었지만 코로나 19로 2

년간 개최하지 못했다. 올해 행사는 광주은행 창립 54주년을 기념해 본점 1층에 새롭게 꾸민 ‘KJ상생아트홀’에서 열린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KJ상생아트홀’은 앞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 등을 통해 예향 광주의 특색을 살린 문화명소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기획전은 4회부터 6회까지 3년 동안 입상했던 작가 28여명의 작품 78점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어 훨씬 풍성한 전시회가 됐다. 또 당시 수상작과 더불어 변화된 작품 세계까지도 함께 살필 수 있는 점도 의미있다.

전시 구성 역시 수상의 여부나 우열을 가리지 않고 작품을 전시, 온전히 작품 자체로 관람객들과 만나도록 했다. 또 각 작품에 대한 친절한 해설과 작품 배치 등도 눈길을 끌었다.

전시는 오는 12월 30일(월-금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열리며 예약(062-239-5062, 5065)을 하면 전문가의 해설과 함께 전시를 관람할 수 있다.

한편 이날 개막식 이후에는 6회 광주화루 수상작들에 대한 시상식이 열렸다. 올해 공모는지원서류 심사, 출품작 개별 심사, 심층 면접 등 3단계로 진행됐으며 수상작가 5인과 입선작가 5인을 선정했다. 대상의 주인공 고현지 작가에게는상금 3000만원과 1000만원의 개인전 후원이 제공되며 최우수상 수상작가 손승범(상금 2000만원), 우수상 수상작가 김준기·김태형·김형수(상금 1000만원)에게



도 시상금이 주어졌다.

한편 ‘광주화루 공모전’과 전시회는 공공의 이익과 상생의 가치를 추구하는 광주은행의 ESG 경영 철학이 담겨있다. 지역의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광주은행은 옛것에 대한 향수와 우리 전통의 맥을 지킴으로써 ‘예향’ 광주가 한국화의 진흥을 일으킬 수 있는 진원지가 되고 지역민과 고객에게 지역의 특색이 담긴 문화와 예술에 대한 공감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장을 제공하고 있다.

송종욱 광주은행장은 “광주비엔날레와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등 국제적인 미술축제가 열리는 자랑스러운 우리지역에서 ‘광주화루’가 한국화의 진흥을 일으키고 지역민들에게 우리 전통문화의 가치와 고유함을 찾는 작은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 앞으로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서 ‘예향도시 광주’의 문화와 예술을 지역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사업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1 광주은행이 주최하는 ‘광주화루’ 전시회가 오는 12월30일까지 광주은행 본점 1층 KJ상생아트홀에서 열린다.

2 송종욱 광주은행장(사진 왼쪽 네번째)이 수상작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3 대상 수상자 고현지 작 ‘Holes’



여성노동항쟁사

‘시대의 노래’ 기획팀 프로젝트

4명 참여작가 결과물 전시

23일까지 양림동 호랑가시나무

26일~11월3일 서울 스페이스9

‘아직 끝나지 않은 시대의 노래’ 기획팀(최하얀·박화연·김서라)은 지난해부터 지역 여성 노동자의 삶에 주목한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부당해고를 둘러싼 1989년 전남방직여성노동자 항쟁을 모티브로 삼은 기획이다. 이 사건은 고(故) 박효선 극단 토박이 대표가 연출을 맡아 ‘떨들어 일어나라’로 공연됐다.

오는 23일까지 광주시 남구 양림동 호랑가시나무 베이스폴리곤에서 열리는 ‘2022 여성노동항쟁사:아시노-잘 진 싸움과 지지 않을 싸움을 위하여’는 기획팀과 4명의 참여작가가 작업한 결과물을 선보이는 전시다. ‘잘 진 싸움들이 남기고 간 작은 타래들을 잘 그려모아 앞으로의 지지 않을 싸움을 위해 엮어본 기획’이다.

이번 전시는 오는 26일부터 11월 8일까지는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 스페이스9에서도 열릴 예정이다. 문래동에는 종연방직이 있었고, 여성 노동항쟁은 광주 뿐 아니라 전국에서 열렸던 일임을 상기시킨다.

참여 작가들은 여성노동자의 신체와 노동 등을 소재로 설치, 영상 등의 작품을 선보인다. 작가와 기획자들은 이번 전시와 관련, 약 3달간의 세미나를 통해 여성노동자들의 고통과 항쟁의 재현에 대

한 문제를 고민하는 과정을 거쳤다.

조수현 작가는 ‘희망자를 접수합니다’, ‘어머니 당신의 아들’, ‘떨들어 일어나라’ 등 노동자들의 삶을 다룬 작품에 출연했던 박강의·임해정·추말숙 배우와의 인터뷰 영상을 담은 ‘실연자의 방’ 등을 선보인다.

정유승 작가의 ‘옹-우-우옹’은 당시 여성노동자들이 라디오에 사연을 많이 보냈다는 증언에서 착안해 여성의 몸에 대해 이야기한다. 실재 없이 돌아오는 기계 앞의 ‘소음성 난청’과 만지로 인한 폐질환 등에 관한 보건교육일지도 눈길을 끈다. 정한결 작가는 ‘생존:폭력의 형태’ 연작, 김재민이 작가는 설치 작품 ‘제1회 방직공장 달리기’를 전시하고 있다. 박화연씨 등 기획자들은 ‘메모로 써보는 역사’ 등 아카이브 자료를 선보인다.

이 전시는 전남방직 여성노동자들의 항쟁들을 다시 살피며 그저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동시대적 감각으로 소통하고자 마련됐다. 또 참가자들은 재계발을 거쳐 변화하게 될 전남-일신방직을 기억하자는, 망각에 대항하는 역사적 싸움이기도 하다고 말한다.

전시와 연계한 행사들도 열린다. 12일 오후 3시~5시 호랑가시나무 베이스폴리곤에서 최하얀·김가



혜·김다혜·김소진씨 등 젊은 여성기획자가 참여하는 전시연계 좌담회 ‘지지 않을 싸움을 위한 수다’가 열린다. 19일 오후 4시에는 참여작가들과 함께 도시제사공장 터, 전남-일신방직 터 등 옛 공장 부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23일까지 양림동 호랑가시나무 아트 폴리곤에서 열리는 ‘2022 여성노동항쟁사:아시노-잘 진 싸움과 지지 않을 싸움을 위하여’.

‘노래가 되자’

발달장애 아동들을 위한

‘릴렉스드 퍼포먼스’

19~20일 ACC 어린이극장

‘릴렉스드 퍼포먼스’는 낯설지 않은 공연 환경에서 편안하게 감각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관람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공연 중 발달장애 아동이나 청소년 등의 도전적 행동이나 감각적 특성에 의한 반응까지 공연의 일부로 수용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은 오는 19일~20일(오전 11시~오후 3시) 발달장애 아동들을 위한 릴렉스드 퍼포먼스 ‘노래가 되자’를 선보인다. ACC 어린이극장.

제작단체인 ‘아주 특별한 예술마을’은 장애와 비장애에 구분이 없는 문화예술 환경을 위해 릴렉스드 퍼포먼스 공연과 예술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실행해왔다. 공연은 객석 조명을 어둡지 않게 조절하는 것은 물론 공연 중 출입이나 이동에 제한을 두지 않는

등 새로운 관람 환경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둔다.

작품 ‘노래가 되자’는 이야기에 따라 변하는 미디어 작품을 배경으로 한다. 배우들 움직임과 이미지를 기반으로 제작된 미디어 퍼포먼스로 극중에서 배우는 배경의 일부가 되기도 하고, 관객과 함께 움직이는 동행자가 된다.

무엇보다 대사를 줄이고 이미지 중심으로 진행돼 발달장애 아동들에게 가장 적합한 형태의 공연을 선보이는데 특징이 있다. 말꼬리 ‘말총이’의 여행을 따라가다 보면 별이 뜬 밤하늘 아래 말총이와 함께 있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광주동부교육지원청과의 협력으로 지역 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급 학생 및 교사를 초청해 관람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36개월 이상 관람 가



능하며 관람료는 1만5천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지난해 ‘노래가 되자’ 공연 장면.

<ACC 재단 제공>